

##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2	76	64	74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0.75	29/32	46.75/16.25	42/18.3

##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 2 )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 2 ) 회
총 수험 기간	( 32 )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스터디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스터디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2차종합반 - 실강

## 3. 합격 수기

-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주제별로 작성해 주세요! (글자 수 제한 없음)
- **주제1~5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처음 법무사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98년이었고 결혼후에도 공부를 했지만, 출산, 육아와 함께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먼저 합격하여 법무사 사무실은 운영중인 남편의 사무실에 제출사무원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수록 나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퇴근후에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보거나 시간이 날때마다 한과목씩 인강을 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후 시험에 응시해보았지만, 길어진 지문과 어려워진 판례를 보고 시험을 포기하였습니다.
- 이후 2022년 첫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후, 더 늦기전에 학원에 다니면서 시험준비를 해보고 싶다고 하자 남편과 다른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지만, 둘째가 고등학생이 되는 시점에 나의 수험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둘째 대학입시가 끝난후에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통상 6월이었던 시험이 8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5개월만에 1차를 붙고 1년 뒤 2차를 붙어서 둘째가 고3이 되기 전에 수험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속에 열심히 해보았지만, 합격점에서 10점이나 모자란 점수로 첫 번째 1차시험을 끝내고, 다시 1년을 공부하여 2023년에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동차시험을 붙여야 고3인 딸을 도와줄 수 있을 듯하여 열심히 동차준비를 하였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결국 고3이 된 딸과 함께 수험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니 각자의 수험생활을 견디면서 오히려 서로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50이 넘는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혼자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둘째 아이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공부를 시작하기 전의 망설임의 시간이 이후의 공부 과정 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한 후에는 오랜만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오히려 딸도 더 열심히 수험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1차시험>
- 2022년 4월쯤 1차시험을 위해 합격의법학원을 방문하니 6월부터 파이널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6월이 될 때까지 혼자서 책을 보며 공부를 하다가 강의가 시작된 뒤부터는 강의를 듣고 빈 강의실에서 복습후, 밤에 다시 인강을 듣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1차종합반을 등록한 이후에도 오전에 수업을 듣고 빈강의실에서 복습을 하다가 6시쯤 집으로 돌아가 저녁준비를 하고 밤 10시쯤부터 다시 공부를 하다가 자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 빨리 수험생활을 끝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동차 준비를 위한 소송법 강의를 병행해볼까하는 욕심을 내어 민사소송법을 시작해보았지만, 너무 무리인듯한 고민을 하였고, 학원 강사님께 의논하였더니, 많은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이지만, 1차를 안정적으로 끝낸후 2차를 준비하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학원에서 강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날부터 1차과목만 준비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복습을 하여도 한과목 강의를 끝난후 다른 과목 강의를 시작되면 지나간 과목을 기억하기가 어려워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두과목을 진행하기가 어려울듯하여 학원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에게 오전 9시 수업시작 30분전에 만나 간단하게라도 다른 과목을 병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스터디 방식은 매일 수업하는 다른 과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분량(민법 기본서로 10~20 페이지 정도, 조문읽기 등)을 정하여 전날 공부후 한사람이 발제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 너무 적어 의미가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하다보니 오전 30분 스터디 만으로 민법2회독, 민사집행법 조문 숙지 등을 할 수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심적인 위안과 서로에 대한 위로가 되어 저에게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정도 부터는 각자 부족한 과목이 달라 스터디를 중단하고 개인 공부만 하였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독서실을 등록하여 저녁10시 정도 까지 공부후 귀가하였습니다.

## <2차시험>

- 1차시험 결과가 합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여 1차에 대한 불안함 없이 바로 동차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때쯤 법무사단기 학원이 집과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였기에 2차 공부는 법단기학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동차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단기간내에 정리할 수가 없어 2과목 모두 과락이었고 법단기의 2차 종합반을 등록하였습니다.
- 법단기 학원은 실강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박효근교수님이 직접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답안지 첨삭과 수험생활의 어려움들을 상담해주시는 스터디팀을 운영하여 주었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는 답안지를 쓸 실력이 안되어 거의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스터디팀이 시작된 이후에는 어떻게든 답안지를 제출하고 첨삭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힘들지만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스터디팀이 없었다면 혼자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부방법은 매일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1차스터디 때 하루 30분만의 시간이 쌓여 기본서 몇회독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2차 또한 과목수가 많으므로 1순환 이후부터는 혼자서 다른 과목을 30분만이라도 병행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2차 시험은 예비순환부터 학원근처 독서실을 등록하여 11~12시까지 공부하고 고3이 된 딸과 함께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 2차과목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하여야 하므로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낯선 과목인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암기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고 판례를 요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노트는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각론의 각각의 죄에 대한 개념을 외워야 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험전날까지 유용**하였습니다.

##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종합반을 등록하여 따라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스터디팀을 병행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부방법없이 수업과 복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스스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없이 생활을 단순화하여 그저 우직하게 그날그날의 학습량을 채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1차시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과 상업등기법은 전략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치중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과목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그 점수를 만회할 자신이 없었고,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상 실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과목없이 수업을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전략과목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1과목을 포기하는데 따른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 2차시험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생활패턴과 공부방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날의 수업 복습과 자신만의 계획으로 병행하는 다른 과목 공부만으로 시간은 빠듯했습니다.
- 1차시험은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면 문제가 풀리므로 특별한 공부방법없이 반복하면 되지만, **2차시험은 이해와 함께 판례요지를 암기해야 하므로 학원교수님들의 수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여러 학원의 수업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법단기에서의 2차수업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박효근 교수님이 함께 강의하시므로 2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실제법 적과 소송법을 어느 시간에 질문하여도 언제나 쉽게 이해할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 형법의 김민준 교수님은 기본개념 판례와 최신판례를 병행하여 형법의 이론적부담을 줄이고 판례위주의 암기를 하여 민법과 소송법에 치여 힘든 수험생들에게 형법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최철훈 교수님 특유의 쉬운 설명과 과장된 표현으로 유쾌하고 쉽게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조문 위주의 수업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거조문을 찾을 수 있고, 하나의 조문과 관련되었지만 결론을 달리하는 최신판례를 3순환까지 반복해 주셨습니다.
- 부동산등기법과 신청서류작성도 오영관 교수님께서 함께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론과 신청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 마지막 정리에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실강생들을 중심으로 단독방을 만들어 다른 과목 수업중이라도 한번씩 부등법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제적으로 2과목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서류작성 수업의 김지안 교수님은 다른 학원 일정으로 바쁜 친구들에게도 길지 않으니 1번이라도 들을 것을 권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부량과 암기량을 최소화하여 부담되는 과목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수를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말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저처럼 학원의 종합반을 실강으로 따라간다면, 월별 공부방법을 특별히 수험생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듯 합니다. 학원에서 만든 최선의 스케줄과 반복수업으로 시험보기 전까지 최소 4번의 반복과 혼자만의 계획하의 반복이 있으므로 특별히 월별 시기별 공부방법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생활의 반복이므로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도 스터디팀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1차스터디팀에서는 누구나 같은 처지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불안감을 떨치려고 하였고, 2차스터디팀에서는 박효근 교수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위안, 각자 처한 상황과 실력에 맞는 조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혼자 완성하고 정리해야 하는 수험생활이지만 저는 함께 공부하고 격려했던 수험동기들이 있었기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같은 강의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닌 합격자모임에서 함께 만날 사람들이므로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주고 나누기를 추천합니다.
- 체력의 저하는 공부에 어려운 것 못지 않게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체력저하는 어쩔 수 없으므로 점심이나 저녁 식사후에는 10~20분이라도 산책을 한 후 독서실로 들어갔고, 점심 혹은 저녁 한끼는 간단한 야채나 달걀 등으로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 짜고 단 음식들, 시간이 부족해서 때우기 식으로 먹게 되는 컵라면 등 때문에 1차 시험후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할 만큼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2차 시험중에는 음식에 대해 많이 조심했습니다.
- 잡생각을 줄이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수가 없을텐데, 그때마다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 중 "끝까지 출석하는 사람중에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 "시험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붙는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왕 늦게 시작한 공부니 결석과 지각 하지 않기, 모의고사 빠지지 않기 등의 단순한 생활규칙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이제와서 보니 합격의 비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지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면서

놓아버기로 싶은 생각이 들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그 때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없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는 2025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